

전북자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주목'

기업·지역 함께 성장... 지속가능 발전 모델 제시

민선 8기 들어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친화정책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1조원 창업펀드 조성 등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그린바이오·상용차·탄소 중심에서 이차전지·레드바이오·미래 모빌리티·기후테크 에너지 신산업·방위산업 등으로 산업지도를 재편하는 데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특별법을 통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선제적 테스트 베드 역할과 규제타파를 적극 수행하는 등 미래 신산업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전북은 물론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국가대표 브랜드를 거머쥌 수 있었던 원동력을 살펴본다.

▲전북에 와서 성공한 기업을 위해 '전성기'

민선 8기 전북자치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가 지난해 투자금액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최근(2024년 3월)까지 민선 8기 들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협약기업 120개사, 투자금액 12조3,044억원, 고용인원 1만3,115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기업이라는 점이다. LG화학과 LS MxM, LS-L&F 배터리 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24개 기업에서 9조1,506억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이차전지' 하면 전북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은 (썬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xM, LS-L&F 배터리 솔루션, 한국미세소재

등 총 6개사 유치를 통해 조기 달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에 문턱 낮춘 찾아가는 기업친화정책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 민원 신속처리(6개월→1개월 이내 인허가 원스톱 처리)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세제 감면 및 규제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비자사업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주요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과 전담 공무원간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전담 공무원이 기업을 직

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 및 처리부서를 지정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입 초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500명이 도내 500개 기업에 배정됐던 것에서 나아가 2023년 군산·정읍·남원·고창 등 4개 시군 1,658개사, 2024년 4월 도내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공무원 2,130명이 2,797개사를 대상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애로사항 2,193건 가운데 52.5%에 해당하는 1,151건을 해소하는 등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투자금액 10조원 넘어서... 대부분 이차전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 친기업 환경 조성 노력 주요

비단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에 그치지 않고 노사 간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자 하는 '노사평화시대' 또한 기업유치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전북이 노사평화시대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신(新)노·사·정 상생공동선언(2023년4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선8기 김관영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생산감소, 소득감소, 소비위축,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양측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익을 조정하는 등 노사 상생문

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새로운 시도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기준 61개사 10조 4천억원 규모의 전북자치도 투자유치에 일조하는 등 전북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전북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시군(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기업(현대차·타타대우·협력사), 산별노조(금속노조·금속노련), 전문기관(JLAT·전북연구원·전북TP) 등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지난 3월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선언을 발표했다.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새만금'

전북에서도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023년 7월) 등 전북에서도 기업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을 마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km에 해당한다.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계각국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여기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 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완화,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65조 2천억원, 고용창출 효과 20만 1천명으로 추산됐으며, 전북의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21년 2.7%에서 2028년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km) 전 구간을 개통하는 등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이 재개된 만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 최고의 SOC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월 도민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통해 들었다. 바로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며 "전북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더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자라 자란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윤준병 의원 "22대 국회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등 개정안 통과되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항일 투쟁 무렵과 그 정상을 읊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법인인 지난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거행된 가운데, 정읍시 주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한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항일투쟁무렵을 전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정읍시민께서 주신 대상에 감사를 표하며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 침탈에 저항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항일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1894년 갑오 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먼저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 교수의 독립유공자 서훈 발원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윤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9월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계속하다 제21대 국회 일정에 따라 개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될 상태에 놓였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호응'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부담 경감으로 크게 환영받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남원시민들은 2024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법인 관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 45종을 무료로 발급받고 있다.

이는 전북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그간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정서24'를 통한 온라인 무료 민원발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과 정보 취약계층 시민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모범 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의원은 "조례안 시행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수수료가 무료화되며,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연구원은 지난 1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제1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전북 백년 디자인 정책 의제 발굴

전북연구원, 제1회 '백년포럼' '전북 동포마을' 관련 특강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난 1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제1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백년포럼'은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전북의 백년을 디자인하고 전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강연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여 매월 2~3회 개최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전북 동포(고려인)마을, 왜 그리고 어떻게?'란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임영상 명예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임영상 교수는 강연을 통해 생활인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 국적 동포를 고려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이어서, 임영상 교수는 동포(고려인)마을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성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백년포럼은 앞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력의 공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의 노동력 공급 부족을 타개함은 물론, 동포 이주민의 문화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차원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목재·석재산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전북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탄소중립 실현·순환형 사회 구축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난 14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 홀에서 우리나라의 임업과 임산업,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임업과 임산업,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순환형 사회구축 관련 상호 R&D 아젠다 발굴, 탄소중립 실현 및 임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세미나·홍보 등의 협력, 전북자치도 목재 및 석재산업 육성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의 핵심소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목재의 고품질화와 기술개발, 익산석 등 전북지역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목재 및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임산물 품질관리와 생산·유통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업화를 추진해온 곳으로 임업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와 기술이전, 목재제품 품질검사와 신기술 지정, 석재산업 사업자 인증 및 진흥지구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남대천 별빛다리 현장안전점검

홍 우주군수와 함께 남대천 별빛다리를 찾아 직접 현장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위한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동부 산악권의 목재를 활용한 목재산업 활성화, 서부권의 익산석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국가적 탄소중립 달성과 전북의 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 최무열 원장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자재인 국산 목재와 석재의 합리적 이용 확대를 위하여 양 기관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교류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임업농가 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4일 무주 시군방문 일정을 마치고 황인홍 우주군수와 함께 남대천 별빛다리를 찾아 직접 현장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1992년 2월 17일 전북경제사회연구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2005년 3월 20일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과 통합해 전북발전연구원으로 개칭됐으며, 2015년 10월 16일 전북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에 관련된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문성을 적극 교류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임업농가 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